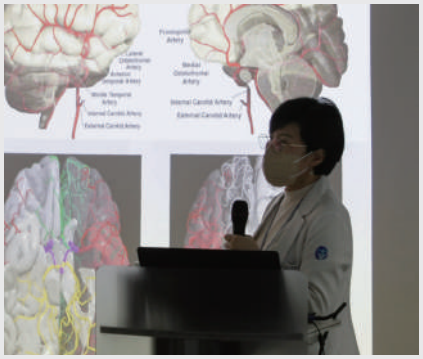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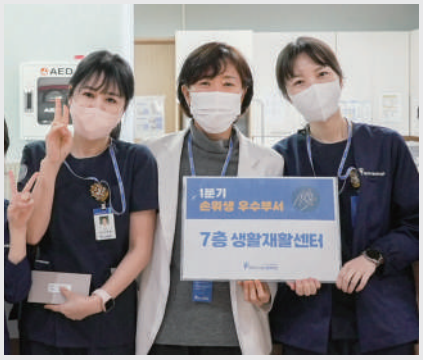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23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3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 재활생활 교육 프로그램

회복기 뇌신경재활 무엇이 중요한가?
김연희 원장님 특강 (03.13)

척수 손상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서　휘 부장님 특강 (03.27)



'슬기로운 재활생활' 교육 프로그램,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토요일에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자와 보호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활치료 기간 동안 준비된 퇴원,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4회기 교육에서 총 8회기 교육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뇌신경 회복기 재활의 이해
- 운동치료와 치료효과
- 재활간호&영양관리
- 준비된 퇴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주거환경개선
- 척수손상 회복기 재활의 이해
- 작업치료와 치료효과
- 장애이해&수용
- 보조공학기기 및 전환홈

이렇게 특별해진 슬기로운 재활생활의 첫 시작은 한국형 재활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한 김연희 원장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3월 13일(수), '회복기 뇌신경재활 :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참여자, 보호자에게 뇌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재활치료의 중요성과 재활기간 동안에 참여자,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담아 주셔서 참여자, 보호자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3월 27일(수), 두 번째 강의는 '척수손상 : 회복기 재활의 이해'에 대해 '서휘 부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본원에는 척수손상 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현재 총 40명 정도의 척수손상 참여자가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척수손상에 대한 이해와 전문 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잘 담아 주셔서 참여자, 보호자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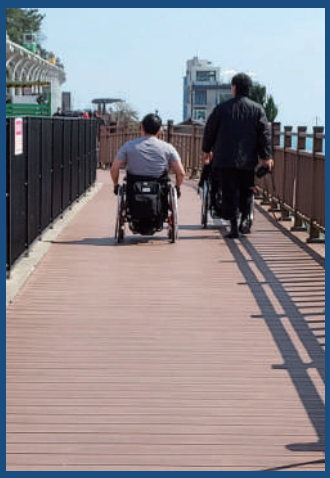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밖으로한걸음씩 (03.14)

병원에서 배웠던 휠체어스킬들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적용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산책로를 다녀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작은 턱이나 내리막길 이동할 때 안정감 있는 휠라이를 사용하셨고 오르막길을 가실 때도 가볍게 올라가셨습니다. 해운대에 자주오셨지만 여기는 처음 오셨다고 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휠체어스쿨 (03.06 / 03.20)

기울기의 각이 크게 보여 지는 경사로에서 주춤 할 수 있으나 코치님의 시범을 보고 직접 도전해 봄으로써 보여 지는 것과 다르게 참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일상으로 복귀하여야 함으로 꼭 필요한 휠체어 사용법에 대한 코치님들의 설명을 집중하여 듣는 모습 속에 참여자분들의 의지가 보여 졌습니다.

휠체어스쿨을 마치고 전환 홈 이안오피스텔에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둘러본 후 즉석해서 이루어진 ‘ 척수이야기’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각자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포츠체험 (03.18)

이번 스포츠체험 시간에는 다섯명의 참여자분들과 함께 볼링센터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볼링센터까지 지하철로 이동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하시는 참여자분들은 발권, 개찰구 이용 등을 경험해 봄으로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볼링센터에 도착해 가볍게 몸 풀기를 하고 두세 명씩 팀을 나눠 게임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진 스포츠체험시간은 신체적 정신적 좋은 에너지를 주었으며 병원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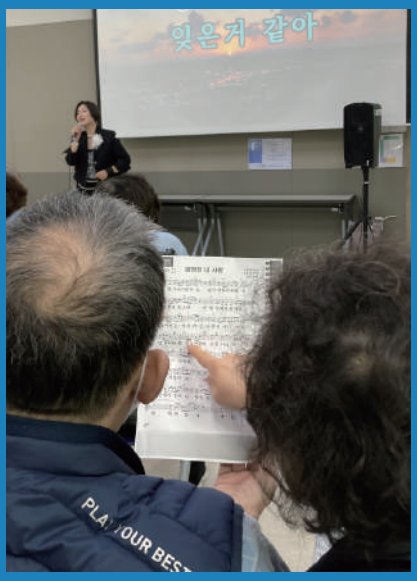


웃음치료 프로그램 (03.09)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 부산지회 러브뮤직과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웃음으로 회복하고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 3월부터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기존 슬기로운 재활생활 교육과는 별도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매월 첫 번째 토요일 진행)

3월 9일(토)에는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이자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직원이 함께 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병원에서의 힘듦을 잠시 내려두고 건강 체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4월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3.08)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주○○, 김○○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채○○, 손○○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우수 출석왕과 우수 자립왕에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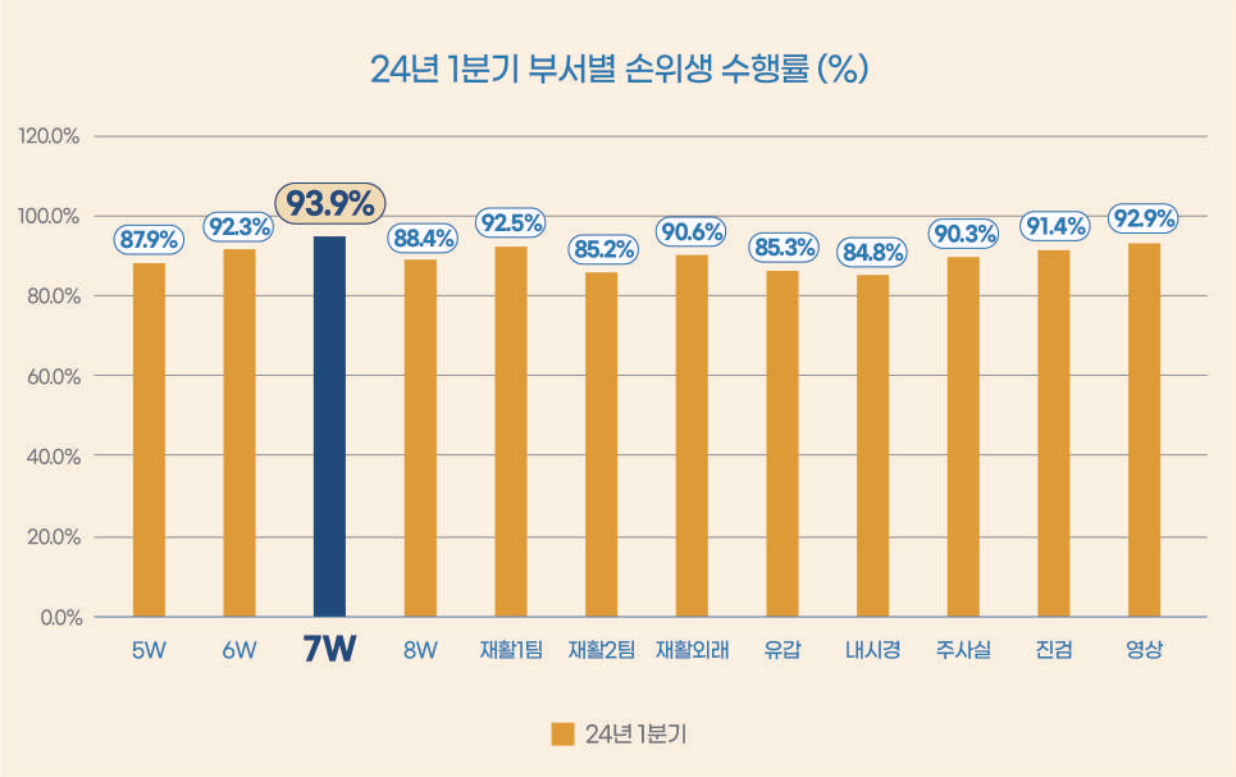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10대, 11대 꿀꺽왕 시상식 (03.08 / 03.22)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여,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8일 제 10대 꿀꺽왕(조○○님)이 탄생하였고, 2주 뒤인 3/22일 제 11대 꿀꺽왕(김○○님)이 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꿀꺽왕이 되신 분들께 축하의 한마디를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7층 생활재활센터' 1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03.18)

분기별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1/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에 7층 생활재활센터가 93.9%로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 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3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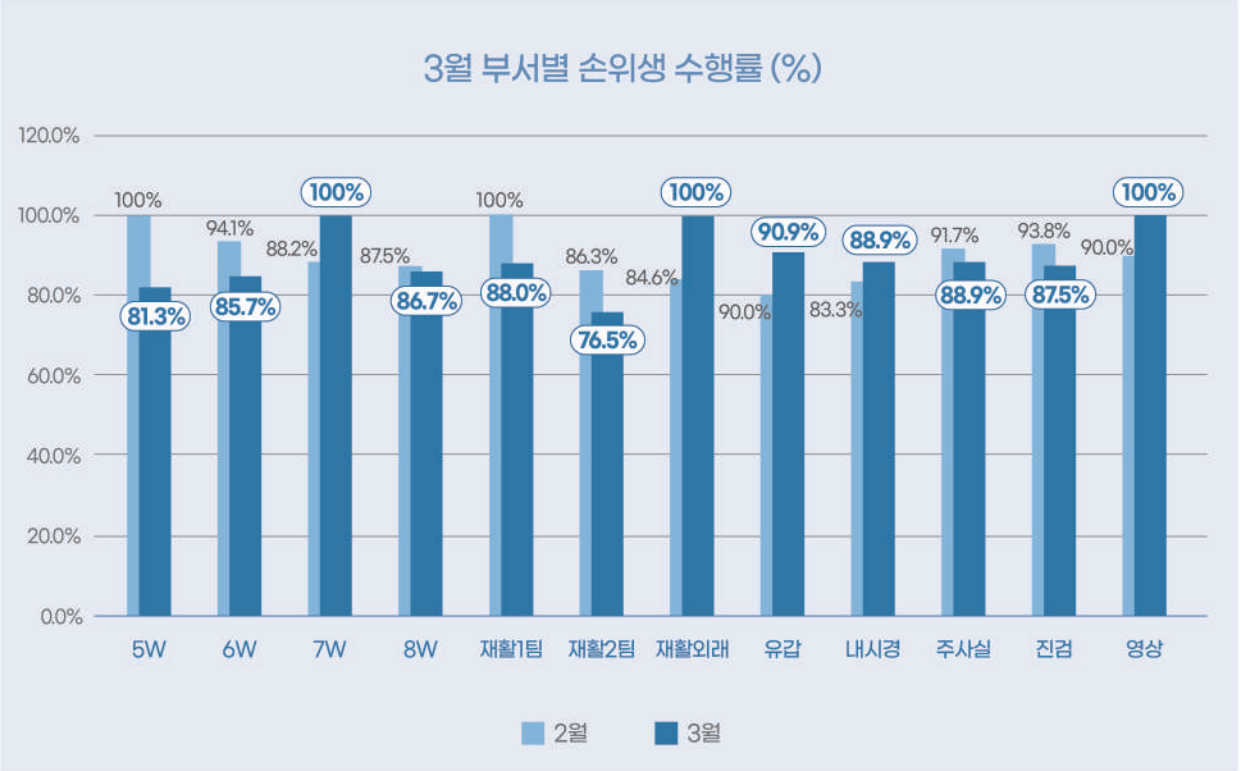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3월 01일 ~ 2024년 03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2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54	136	88.3%	**- 2.1%**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1분기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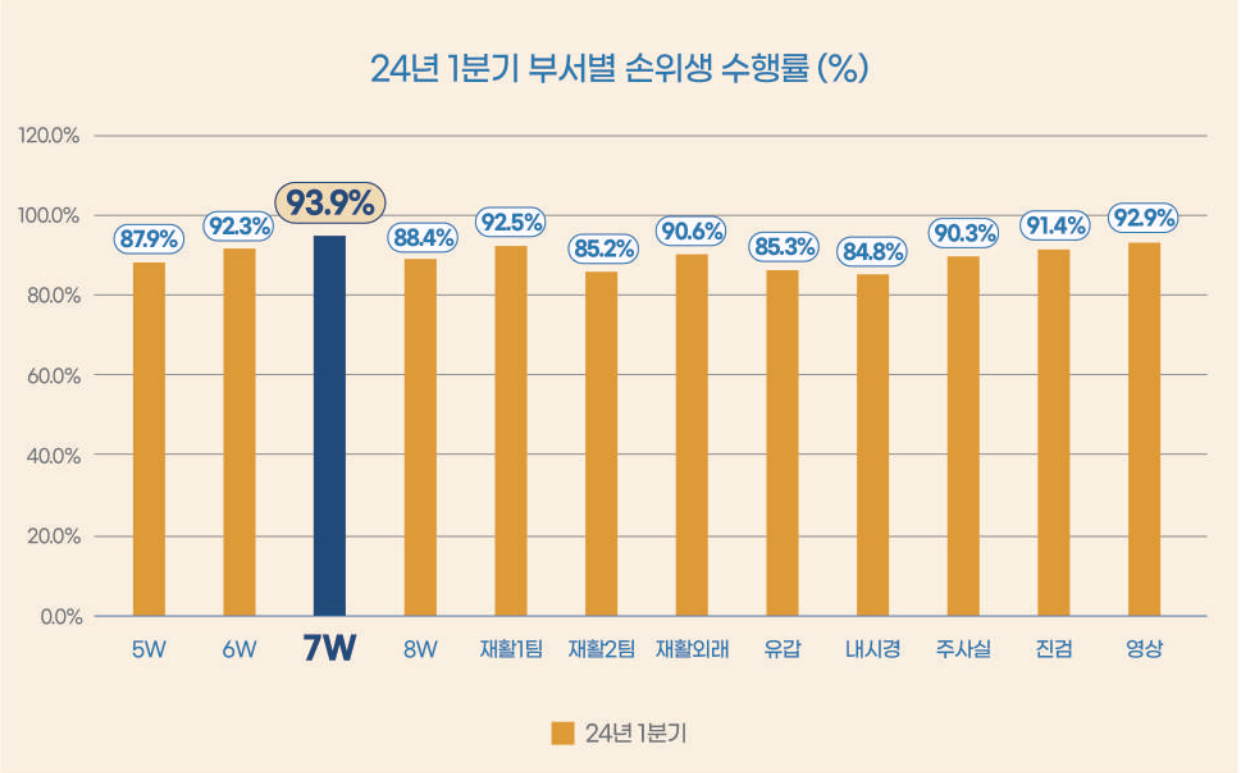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03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90	471	422	89.6%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복귀지원이야기 두 번재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02

의문을 남긴 긍정왕과의 첫 상담

비회복기로 입원한 김○○님은 사고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서울에서 고압산소치료 후 타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발병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기에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관절구축으로 보행이 어려웠으며 인지 및 감정기능에 대한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첫 사회사업 상담, 김○○님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치료 잘 받고 있어서 걱정되는 것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막힘없는 원활한 대화, 우울감을 표출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웃으며 긍정으로 얘기하는 참여자의 모습에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시기별로 가족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알맹이 없는 긍정적 답변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빠른 대면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치료 지속과 사회복귀 준비 계획을 위해 끊임없이 상담하다

김○○님의 어머니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그동안의 아픔을 눈물로 토해내셨습니다. 배우자의 우울감 및 관계 변화(참여자 가정)로 인한 힘듦,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 경제적 문제, 치료비로 인한 엄청난 부채는 60-70대의 부모님과 형제가 오롯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의 회복을 위해 단단히 부여잡고 있던 재활치료의 끈, 사회사업팀은 경제적 지원을 시작으로 힘을 보태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치료비 지원사업을 찾아 나섰고 '바보의 나눔 재단-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사업에 신청하여 라디오 방송을 통한 모금으로 6,578,000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생계비, 복지용구,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치료 지속을 위한 희망의 끈을 이어갔습니다.또 사회복귀 준비의 일환으로 (사)나눔으로 행복한 동행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회복귀 준비, 의료기관-가족-지역사회를 잇다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퇴원이 가까워진 시기에도 퇴원경로와 돌봄문제에 대해 가족의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입원 중 족관절 수술로 보행연습이 불충분했다는 생각에 본원 입원기간 만료 후 타병원에 입원하면 더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 돌봄자원 부족, 집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미루고 미루다 부모님 집으로 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활의료 김연희 원장님의 적극적 지지와 사회사업팀의 지속적인 상담, 자원 연계를 통해 참여자가 가정에서 일상에서 생활하며 재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본원 일상재활센터(낮병동)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3층 집에서 계단을 내려올 수 없어서 퇴원 초반에는 병원방문이 어려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전동휠체어 준비를 마쳤지만 활동지원사 매칭이 쉽지 않았고, 주소지 문제로 보건소 방문재활 서비스가 제한됐던 상황을 정리해야 했고 보건소 방문재활을 두세차례 진행 후 본원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퇴원을 결정해주신 가족의 지지 속에서 김○○님은 또 다른 일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일상을 채우는 활동과 직업 연계까지, 김○○님의 사회복귀 준비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
<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
<tr><td>남성</td><td>40대</td><td>급여 1종</td><td>저산소성뇌손상</td><td>2021. 12.</td><td>2023. 04 ~ 2023. 12</td></tr>
</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3인 가구(부부자녀가구)
■ 주보호자 : 부모</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참여자 치료의지 약화 및 내·외부환경에 대한 인식 저하
■ 배우자 및 부모님의 우울감 매우 높음
■ 배우자 지지체계 약화로 퇴원 후 부모 거주지에서 돌봄제공 계획 및 일상생활 계획 수립 필요
■ 사회복귀 후 직업활동의 어려움</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치료 지속 지지체계 필요(치료비지원사업)</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다세대주택 3층
■ 주거환경 : 3층 계단 이용, 외부 난간 연장 설치, 참여자 생활공간구성(환자용 침대 구입),
화장실 세면대 설치, 공간 재배치 및 안전바 설치 필요</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본원 입원치료 가능 기간 짧아 가정으로 복귀 후 낮병동 이용 통한 치료 지속 필요
■ 전동휠체어 이용한 이동권 확보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이 적어 낮병동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 있음
(활동지원서비스 이의제기 신청)
■ 취미/여가활동 탐색 필요</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퇴원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부모님 자택
■ 치료계획 : 일상재활센터(낮병동)
■ 이동수단 : 수동/전동휠체어, 가족 자차</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
■ 정서지원 : 이벤트 PG</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바보의 나눔재단 치료비지원사업 대상 선정(657만원 후원금 모금)
■ (사)나눔으로 행복한 동행 주거환경개선 사업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정
(250만원 내 주거환경개선 지원)
■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 해운대구 보건소 재반지소 방문재활서비스 연계</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당신의 생각보다
당신은 더 강한
분입니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도약식 (03.05)



전 직원이 모인자리에서 2024년 도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과, 새 가족을 소개하며 축하와 환영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전하는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백선미 병원장님의 센터와 팀의 목표 그리고 올해 바뀌는 해나행 조직체계 및 조직운영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조직문화성장실 박선미 실장님이 2024년 연간주요일정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 경영분석실 이태한 실장님의 작년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목표에 대한 보고, 브랜드전략팀 남현우 팀장님이 '브랜드 페르소나'라는 주제로 페르소나 설정을 통한 브랜드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새로운 리더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표하고, 개인을 넘어 팀과 병원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당부하는 승진과 임명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새로고침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와 시상식을 재활1팀 장철호 부파트장님이 진행하였으며,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님이 법인에 대한 설명과 2024년 법인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회복기재활의료기관의 3가지 역할 특강 및

재활의료원장 이·취임식 (03.20)



3/20(수) 오후엔 재활의료(진료부, 재활간호팀, 재활치료팀, 사회사업팀, 재활코치팀)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재활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김연희 원장님의 특강과 퇴임식 및 임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연희 원장님은 강의에서 재활의 특징은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고,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다원적인 팀접근을 해야지만 된다며, 목표 중심으로 가야되고, 우리가 목표를 잃으면 참여자(환자)들은 길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당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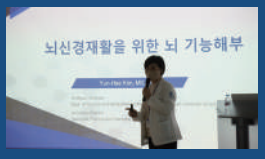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신 김연희 원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각 팀에서 따로 준비한 선물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새로 부임하시는 김완호 원장님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김완호 원장님은 인사말 서두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며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훌륭하시고 많은 영향을 끼치신 김연희 원장님의 후임으로 일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배운 바를 나름대로의 경험과 여러 가지 했던 공공재활의료들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 잘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재활의학과 최경인 과장님 퇴임식 (03.28)

오랜 시간 함께하며 보여주신 가슴 따뜻한 열정, 우리병원 재활의학과 성장에 기여하신 과장님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퇴임식을 마련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활에 대한 관심과 의미 있는 시도, 언어인재재활전문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우리병원 재활시스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원칙에서 출발하는 정확한 진료는 모든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재활치료1팀 노현욱 파트장 임예슬 주무

(03.05 / 0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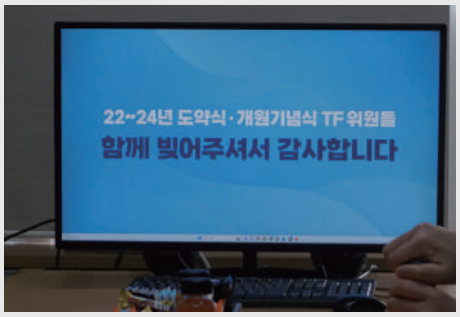
새로고침프로젝트, 개원기념일, 도약식 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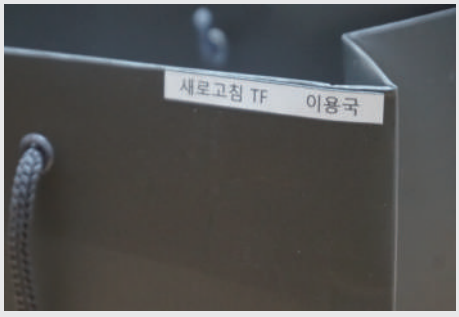
감사의 마음 전달식 (03.22)

그 동안 TF로 구성되어서 본인의 업무 외에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새로고침 프로젝트 TF', 매년 개원기념일 행사를 위해 애써주셨던 '개원기념일 TF' 그리고 3월에 있는 도약식 행사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도약식 TF'의 구성원들과 함께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구성원 한 분 한 분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과 함께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전체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톡톡’ (03.21)



2024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1회차를 진행했습니다. 3월 21일(목) 첫 시작, 형제 중 막내 ‘막둥이’, 영탁팬 사인회의 추억 하트 여우란 뜻의 ‘하우’, 따스해서 ‘햇님’, 좋아하는 캐릭터 ‘춘식이’ 등 나의 별칭을 짓고 마음을 나누어 갔습니다.

발병 후 병원에 오게 된 과정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위로를 건네고, 위안을 얻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더 알찬 희망의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며 마음톡톡 1회차 마무리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오일 만들기’ (03.28)



이번 시간에는 참여자와 보호자가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참여자, 보호자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몸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진 후, 아로마 오일의 다양한 효능과 괄사를 이용한 마사지 방법이 담긴 유인물을 숙지하였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직접 계량, 각종 재료를 섞고 허브향을 맡으며 정성을 담아 아로마 오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마사지를 해봄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3월의 신규입사자



소화기내과 김상우 과장



내분비내과 박미경 부장



재활간호팀(8W) 이수정 간호사



진단검사팀 박영림 임상병리사



총무팀 윤진혁 안전관리자



재활간호팀(8W) 송지혜 간호사



재활간호팀(7W) 고원영 간호사



재활간호팀(7W) 김채윤 간호사



재활간호팀(8W) 김선미 간호사



재활간호팀(5W) 김명주 간호사



재활의학과 김완호 재활의료원장



재활간호팀(7W) 송가람 간호사



재활간호팀(8W) 박소윤 간호사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백선미 병원장님 우수납세자 표창장 수상 (03.07)

해운대구청에서 진행하는 우수납세자 표창장 시상식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병원장님이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시간일정상 오후 진료 때문에 원무팀장님이 대리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병원은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병원이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번영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용 프로그램 (03.19 / 03.22)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0명이 이미용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3.05)

'일떠서다'라는 우리말을 아시나요?

'일떠서다'
사전적 의미는 기운차게 썩 일어나다.
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기운차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연히 본 이 우리말이,
오늘 도약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참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해나행 가족들이 일떠설 때
어지럼증 없이
다리에 힘 풀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영양성분 가득한 특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초 도전!
뷔페에선 봤던 앙쿠르트 수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양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 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시작될 도약식에서
5대 영양소를 쏙쏙 흡수하여
기운이 빡 들어간 목소리로
힘찬 출발을 외치며
축하와 격려, 감사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주차 긁힘 합의금으로 38,000원이면?

배려가 가면 배려가 온다. 감사가 가면 감사가 온다.

저녁 늦은 시간에 낯선 번호로 폰이 울린다. 010으로 시작해서 일반 휴대폰임을 알고 전화를 받는다. 상대방은 떨린 목소리로 내 차번호를 부르며 차주임을 묻는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차 길래 어렵지 않게 직감했고, 내 예상인 빗나가지 않았다. 상대 여성운전자분이 주차하다가 내 차를 긁었다는 것이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챙겨 문을 나섰다. 내 차 앞에는 내 또래로 보이는 부부가 있었고, 내가 차 앞으로 가자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나도 인사를 하며 차 상태를 확인했다. 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에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있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하게 긁혀 검은색 부분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범퍼가 깨지거나 움푹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마도 여성분이 후진주차를 하다가 본인의 왼쪽 옆면을 나의 오른쪽 앞쪽을 접촉했을 것이다.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던 터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나는 '보험처리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으냐'고 대답했고, 상대도 그러하겠다고 했다. 비록 중고차이긴 하나 몇 달 전에 구입한 차라서 외관은 긁힌 곳 하나 없었기에 보험처리로 범퍼 도색이나 교환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서로 일치했다. 특별히 가해자와 피해자라 할 것도 없는 주차 접촉사고에 서로의 연락처를 한 번 더 주고받았고, 늦은 시간이라 내일 오전에 보험회사를 통해 연락 준다는 말을 남기며 발길을 돌렸다. 아파트 같은 동이지만 라인이 달라서 각자의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생각지도 못한 피곤함을 각자 안은 채 사라졌다.

다음날 출근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다. 보험처리를 하면 내가 차를 끌고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정비소에 가야한다. 내 차를 맡기면 비슷한 차로 대차해서 들고 와야 한다. 직장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거나 점심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직장 건물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얘기하고 임시차량으로 주차 등록도 해야 한다.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차가 수리되면 또 일과시간에 차를 찾으러 가야 한다. 주차재등록도 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불편함은 오로지 내 몫이라는 생각에 귀찮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출근 후 업무의 집중력이 흐려질 때, 접촉사고를 낸 여성에게 전화가 아닌 문자가 온다. 그녀는 얼마 전에도 보험처리를 해서 이번에 또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된다고 현금 10만원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 공손히 묻는다. 앞선 불편함과 귀찮음, 그리고 사실 차가 살짝 긁혔다고 내 운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비록 구입한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외관이긴 하지만 내가 차 외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까지 이르렀을 때 내 스스로에게도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분명 상대방은 전날에도 잠을 쉽게 자지 못했을 터이다. 사고 냈을 때 자신에게 짜증도 났을 것이고, 남편에게 급히 전화해 사건에 대해 실랑이를 벌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렵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을 터이다. 다음날 보험회사 할증 소식에 전전긍긍 하다가 뒤늦게 용기 내어 1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주차시 접촉사고의 암묵적 관행은 현금합의가 많이 이뤄진다는 것을 나는 운전초보때 경험했다.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친구차를 운전하고 주차하다가 실수로 주차해있던 차를 긁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 당시 2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지불했던 뼈아픈 학창시절이 떠올랐다. 그 돈 마련을 위해 대학교 강의실 청소를 하며 근로장학금을 6개월간 했었다. 세상물정 아무것도 몰랐고, 가슴 졸여 상대방에 달라는 대로 돈을 줬던 나의 그 시절이 불현 듯 떠올랐다.

사실 이번에도 10만원 받고 수리 안하면 그뿐이다. 근데 나의 어릴 적 모습과 상대에 대한 감정을 생각하는 순간 조금 더 배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장문의 문자로 상대방을 걱정해주고, 10만원을 줘도 나는 아마 고치지 않을꺼라는 점을 얘기했다. 그래서 차량이 긁혔을 때 색칠하는 붓펜만 사달라고 전했다. 내 차량색상과 함께 친절하게 링크도 알려줬다. 이것저것 하니 38,000원이었다. 10만원을 받고 내가 구입할 수도 있지만, 대신 상대방에게 구매해서 받고 싶다고 했다. 이건 단순히 물품구매를 미루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피해차량의 물품을 직접 구매해주고, 만나서 전달까지 하는 것이 일종의 책임감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딱 거기까지다.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했다. 그저 38,000원치 차량도색 용품 3가지만 구매하면 끝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차량도 같이 구매해서 셀프로 도색할 것을 권했다. 굳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소에게 좋은 일을 시킬 필요 없지 않느냐라며 이쯤해서 마무리 하자고 제안했고, 상대는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로 마무리 지었다.

> 배려가 가면 배려가 온다.
> 위로가 가면 위로가 온다. 감사가 가면 감사가 온다.
> 여름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한 가을은
> 모진 겨울을 만나지 않는다.
> _정철《동사책》(김영사)

4일 후 상대방에게 제품구매를 다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퇴근길 물품을 받음으로써 그날의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해도 정말 되는지,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녀의 사과에 거듭해서 괜찮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식사 후 나는 셀프세차장으로 갔고, 시원하게 외관세차 후 본격적으로 색칠을 시작했다. 생각처럼 깨끗하게 복원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차의 상처는 빨간색 페인트로 얼룩이 지겠지만, 상대방은 어릴 적 상처에 바르던 마법의 빨간약처럼 마음이 치유되었을 꺼라 믿어본다.

봄을 앞두고 다시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
셀프세차 후 마른수건으로 닦기도 전에
남은 물기들이 그대로 얼어버렸던 그날.

'세차비라도 받을 걸 그랬나?'

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ㅋㅋㅋ



이 브런치스토리는 3월 5일
포털사이트 daum 메인에 뜨고, 9,000 view를 달성했었습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4년 03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